

KÓKKOS 2026 10

• 코코스는 한 영의 믿음의 의미 • 발행인 최장권 • 편집주간 이강동 •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 01757 서울 노원구 동원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



OCTOBER 2026

VOL. 294

▲ “우리가 함께 만든 ‘The Found Sinner’”

12일 로고스홀에서 창작 뮤지컬 공연을 마친 학우들이 무대 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열정과 협력으로 무대를 완성한 배우들의 모습이 공연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한다. 모두 성서학과 학우들이다. * 앞줄 왼쪽부터 양지혜(1), 손하울(1), 강하람(2), 이예빈(1) * 중앙 왼쪽부터 현수아(1), 박이삭(3), 김세연(2), 이주찬(3) * 맨 뒤 왼쪽부터 김미진(3), 표성민(1), 이강진(1), 남궁이레(4) [관련 기사 6 페이지]



하나님과 내 삶을 다시 맞추다

**2026.10.29.(목)
10:00 ~ 18:00
한국성서대학교**

제42대 한국성서대학교 Wish 총학생회

종교개혁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2026년 크리스천 데이 행사가 42대 Wish 총학생회(회장 이금주) 주관으로 10월 29~30, 2일간 진행된다. 첫날 기념예배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화합과 연대를 다짐하는 산 제사를 올린다. 이튿날 체육대회에

크리스천 데이

10월 29~30일, 2일간

기념예배, 문화 공연 등 준비

체육대회는 초안산스포츠타운에서

서는 스포츠를 통해 우애를 돈우고 활기찬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이금주 회장은 “2026년 크리스천데이는 ‘SYNC_하나님과 내 삶을 다시 맞추다’라는 주제로 예배와 찬양 워십, 다양한 부스와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다같이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 크리스천 데이 - SYNC 하나님과 내 삶을 다시 맞추다 (10월 29일)

12시 기념예배는 조현진(성서) 교수가 말씀을 전한다. 교내 잔디밭 일대에 각 학회와 전도반이 부스를 차리고 홍보와 함께 식음료, 간식 등이 판매된다. 외부 업체가 참여하는 프리마켓 장터도 갖춰질 예정이다. 학우들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겨룰 찬양 워십 대회와 유명 아티스트가 꾸며갈 흥겨운 공연 무대도 마련되고 있다.

◆ 체육대회 - 청춘질주 (10월 30일)

체육대회는 오전 10시에 월계동 초안산스포츠타운에서 흑·백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갖는다. 오전은 흑팀(성서, 영보)과 백팀(사복, 간호, AI)이 공굴리기, 발야구, 계주, 미션 달리기 이어지며 오후에 단체줄넘기, 피구, 줄다리기와 축구 및 혼성계주가 박진감 있게 펼쳐진다.

학과별 치열한 응원전과 이벤트 게임 및 푸짐한 경품추첨 순서도 학우들의 군침을 돋우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도시락이 제공된다.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 (전 3:1~15)

김정원 교수 (성서학과)

전도서의 핵심 단어인 ‘헤벨’은 ‘헛됨’으로 번역되지만, 본래 의미는 ‘입감’이나 ‘안개’입니다. 안개는 손으로 잡으려 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시간과 환경을 통제하려 할 때, 삶은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허무해집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미래에 매달려 버둥거리는 삶은 ‘헤벨’로 끝나게 되지만 한 계(헤벨)를 인정하는 순간, 안개 너머의 하나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타이밍인 ‘에트(때)’입니다.

인생에는 ‘올 때’와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조각들을 모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자 코헬렛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헛된 힘을 풀고, 현재의 ‘에트(때)’를 선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3:13).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생명이 소중합니다. 내일 염려를 내려놓고, 주어진 일터에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웃는 소박한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자 지혜입니다.



리니셜교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

교수학습센터 2학기 프로그램

🔌 학업공동체

학업공동체는 전공 및 교양 학습을 지원하는 팀이다. 현재 27팀, 69명이 참여하고 있다. 열품타 5팀(14명), 같은 과목 15팀(36명), 투플 7팀(19명)이다. 각 팀원들은 9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팀별 학습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따라 학습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목표 달성에 도전한다. 정해진 시간과 약속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세운 목표를 끝까지 실천하는 학습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NSLB 러닝메이트

멘토링과 개별 맞춤학습을 통해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다. 멘토링 13팀(멘티 14명, 멘토 12명)과 개별맞춤학습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소수집단 학생, 학사경고자 등의 학업 향상을 지원한다. 참여 학생들은 'NSLB Learning Mate' 시스템을 활용해 학습계획과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고 점검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힘과 학습습관을 기른다. 멘토들은 자신의 학습 노하우를 나누며 멘티가 학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습법 워크숍

학습법 워크숍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팀이다. 발표 역량 향상, 취업 면접, 스피치 특강 등 프로그램을 통해 호흡·발성·발음 등 스피치의 기본부터 STAR 기법을 활용한 답변 구성, 면접 상황에서 핵심을 짚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까지 익힌다.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실천 역량을 높인다.

🔌 Goal-In Project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실천하도록 돕는 Goal-In Project도 진행 중이다. 하계방학부터 세운 목표를 10월 31일까지 이어가며,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자기계발 프로그램, 취업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한 토익 목표에도 도전하고 있다. 일반 유형 23명, 토익 유형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5회 독서감상문 대회

제출
10월 14일(월)까지

발표
10월 23일(수)

도서관은 '제5회 독서감상문 대회'를 개최한다.

대상 도서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가즈오 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 등 5권이다.

응모 희망자는 이 중 한 권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 10월 14일(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10월 23일(수) 발표되며 대상(25만 원), 최우수상(15만 원), 우수상(5만 원, 4명)이 수여된다.

도서관 최지은 팀장은 “가을을 맞아 책을 통해 삶과 영혼을 돌아보는 뜻깊은 기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 도서와 저자는 다음과 같다

▲데미안(헤르만 헤세)

▲성경을 믿어야 하는 일곱가지 이유(여원 루처)

▲클라라와 태양(가즈오 이시구로)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모엔)

▲오늘부터 나는 기후 시민입니다(김해동)



27년 수시모집 경쟁률 5.12:1

전년 대비 하락
간호학과 13.03:1로 가장 치열

우리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은 232명 모집에 1,161명이 지원, 정원내 경쟁률을 5.12:1을 기록했다.

정원 내 학과별 경쟁률은 간호학과 13.03:1, 사회복지학과 7.83:1, 영유아보육학과 3.76:1을 보였고 AI융합학부 2.56:1과 성서학과 1.64:1 순이었다.

유형별 전형의 목회자추천에서는 간호학과가 8명 모집에 174명이 지원, 21.75:1을 기록하며 치열한 격전지로 부상하였다. 교과성적우수자는 사회복지학과 80명(6명 모집)이 지원, 13.33:1로 가장 높았다.

올해 경쟁률은 전년도 6.17:1(지원자 1283명)에 비해 다소 하락, '사실상 미달'이라는 6:1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했다. 성서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2026학년도 수시 때보다 경쟁률, 지원자 수에서 열세를 보였다. 성서학과는 1.64:1에서 1.76:1로 소폭이나마 올리는 이변을 보였다.

수시 지원자들은 10월 7~8일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6일 발표된다.

일립논총 제28집 발간

이만규 교수 등 6인의 논문 수록



한국성서대학교의 학술연구 역량을 담은 2026년 『일립논총』 제28집이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성서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AI융합학부 6명 교수의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다.

김원빈(AI) 교수는 「밀알정신으로 바라본 IT 창업가 정신」을 통해 현대 IT 창업 생태계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살피고, 밀알정신이 새로운 창업가 정신으로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립논총 제28집의 연구논문 제목과 저자는 다음과 같다.

▲ 이만규(성서)

마태복음 10:34~39와 11:25~30에 나타난 제자도의 긴장 구조: 십자가와 안식의 신학

▲ 임지영(AI)·임성묵

AWS Lambda 기반 API 서버의 아키텍처 설계 및 런타임 성능 최적화

▲ 김정원(성서)

시편 19편의 구조와 신학 ; 창조, 토라, 인간 응답의 통합적 이해

▲ 김원빈(AI)

밀알정신으로 바라본 IT 창업가 정신

▲ 김성호(사복)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의 반려동물 애착이 애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 대리 인식과 동물 권리 인식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조혜경(영보)·김진홍·정하영·정지영·전선우·최준서

영유아 놀이 지원 관련 질적 연구의 동향

가족을 품고 기도하는 가족구성원캠페인

불신가족에
복음의 증인 향한 첫걸음



▲ 강경규 목사가 간증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교목실은 지난 1학기의 신·편입생 대상 전도집회(3월 25일)를 통해 학우 40명이 그 리스도를 영접한 데 이어 2학기 가족구성원캠페인을 향한 구원의 일정을 힘차게 진행하 고 있다.

현재(9월 30일) 7명의 학우가 15명의 불신가족 구원을 위한 전도 캠페인에 참여중 인데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캠페인은 개강 후 신청자와 전도 대상자를 확정 하고 간증 집회와 구원 워크숍, 세 차례 기도회를 거쳐 13 주차에 복음을 직접 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난 17일에는 강경규 목사(CCC EDI 전도제자훈련원 전임강사)가 ‘내 증인이 되리 라’(행 1:8)를 주제로 간증 집회를 인도했다. 강 목사는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으로 부 모, 배우자가 있는데 최고는 예수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말하고 자신 이 본가와 처가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했던 경험담을 나누었다. 그는 “전 도를 위한 기도가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닫혀 있던 대상자 마음 문을 열어 주신다”라고 말했다.

2학기 가족구성원캠페인 행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날짜	행사	비고
3주차	9/17(목)	가족구성원캠페인 간증집회 (강사: 강경규목사, CCC EDI)	장소: 로고스홀
5주차	10/1(목)	1차 가족구성원워크숍	장소: 교회음악실습실
6주차	10/8(목)	가족구성원기도회 및 전략회의	장소: 교회음악실습실
7주차	10/15(목)	가족구성원기도회	장소: 교회음악실습실
8주차	중간고사 기간: 복음제시 가능 및 불가능자 확인		
10주차	11/5(목)	가족구성원기도회	장소: 교회음악실습실
11주차	11/12(목)	가족전도대상자 접촉 유무 확인	장소: 교회음악실습실
12주차	11/16~20	가족전도대상자 선물 준비	장소: 교회음악실습실
13주차	11/23~27	복음제시 & 선물 전달 (복음제시 결과지 수납)	장소: 교목실
14주차	11/30~12/4	평가 및 피드백	자체 강평회 및 평가 보고서

2학기 영어 졸업고사 73명(76%) 합격

10월 3일 진행된 2학기 영어 졸업고사에 113명이 신청하고 96명(85%)이 응시하 였다. 이 가운데 73명(76%)이 합격하였고 이는 전년도 2학기 합격률 63%에 비해 13% 상승한 기록이다. 4학년은 응시자 20명 중에서 16명이 합격(80%)하였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The Found Sinner’)

성서학과 학우들의 뮤지컬
400여 객석, 박수와 함성으로

KBU임팩트봉사단(단장 장인순)이 주최하고 성서학과 학우들이 직접 제작·출연한 뮤지컬 ‘The Found Sinner’가 9월 12일(토) 오후 7시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막을 올렸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공연에 노원 지역 교회 성도와 일반 주민, 가족 등 400여 명이 객석을 메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공연의 큰 특징은 대본과 음악, 연출은 물론 배우와 스태프까지 전 과정을 성서학과 학우들이 직접 맡았다는 점. 특히 우리 대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 건 처음 있는 일로, 문화공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무대가 됐다.

공연은 첫 장면부터 마지막까지 잘 이어지며 몰입을 이끌었다. 특히 삭개오를 통한 메시지는 성경 이야기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진다. 대본과 연출을 맡은 이민영 학우는 공연을 통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과, 누군가를 죄인이라며 손가락질하는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공연이 끝나자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 함성으로 답했다.

출연 학우에겐 이번 뮤지컬은 모두 처음이었다. 학우들은 방학과 함께 부족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 4회, 강도 높게 연습

을 이어갔다. 공연을 완성하겠다는 열정으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작품을 만들어냈다.

한 관람객은 “성서대 학생들이 직접 뮤지컬을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전공자도 아닌 학생들이 열정을 쏟아 완성한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연은 학생들에게도 도전과 성장의 무대였다. 부족했던 음악과 연기, 무대 경험 이 연습을 통해 작품으로 완성됐고, 그 과정에서 학우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험을 쌓았다.

교목실은 주말에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9월 15일(화)에 앵콜 공연을 마련하였으며 학우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환호하였다.

출연진과 스태프는 다음과 같다

△ 출연진

예수님 김세연 / 삭개오 박이삭 / 아줌마2, 삭개오 엄마 남궁이레 / 아줌마4 김미진 / 나병환자, 바리새인, 삭개오 아빠 이주찬 / 어린 삭개오, 군중3 강하람 / 세리3 손하울 / 아줌마3, 소녀2 양지혜 / 군중2, 소년, 동네사람 이강진 / 군중1, 세리2, 소녀1 이예빈 / 군중4, 세리1 표성민 / 마리아, 아줌마1 현수아

△ 스태프

스태프: 김예지 채린 강민음 전소망 / 극작, 연출: 이민영 / 작, 편곡: 이광석 / 지도교수: 권용준



• 공연후기 •

뮤지컬 'The Found Sinner'를 마치고

성서학과 2, 이민영 학우
(극작 · 연출 담당)



‘성경 속 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왜 삭개오 이야기를 쓰게 되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바른 말 보다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임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결핍을 채우고 싶던 한 사람이었고 결핍을 채우는 수단으로 돈을 선택했지요. 자신의 선택을 위하여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 같이 질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비천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냈던 시절,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하려고 힘쓰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난 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대본을 쓰면서 삭개오 이야기는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은 어떠한가, 혹시 여전히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찾아가서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뮤지컬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4월 KBU임팩트봉사단 주최로 공연을 올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돌아볼수록 단 한 순간도 기적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산을 하나씩 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마주친 산은 바로 음향 장비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다미디어 박성탁 감독님이 음향과 조명을 대여해 주었고 무대 미술 작업은 성서 신학대학원 원우이신 구상미 사모님의 손길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미술적 감각으로 아름다운 무대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성서학과의 저력을 맛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서학과의 한 학우는 일렉기타 라이브 연주로 재능기부를 해주었고, 공연 당일 많은 성서학과 학우들이 공연 전 안내부터 공연 후 뒷정리까지 도맡아 주었습니다. 제작비와 간식비도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회였습니다. 권용준 교수님은 이번 사역이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 공연에 참여한 학우들의 가족, 지인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제가 리더로서 동료 학우들의 마음을 살피보지 못한 점입니다. 뮤지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종종 스쳐 지나갑니다. 리더가 되기에는 좀처럼 자격이 없는 저와 끝까지 함께 해준 학우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따름입니다. 무대는 무대일 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8)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에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 하나만



추석맞이 문화행사 소통과 교류의 시간

한국어교육센터 유학생 100여 명



▲ 최정권 총장이 유학생들에게 윷놀이 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센터(센터장 이인영)는 23일 일립관 B101호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추석맞이 문화행사’를 가졌다.

최정권 총장의 격려사로 시작 되었다. 일립관 B101에 100여 명의 유학생과 강사 및 교직원들이 참석했고 한국에 입국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5명의 신입 연수생도 자리를 같이 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윷놀이와 제기차기의 운영 방식을 익힌 후 팀별로 게임을 이어갔다. 국적과 한국어 구사 수준이 각기 다른 유학생들이 한 곳에서 전통 놀이를 통해 명절의 흥을 주고 받으며 모처럼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이인영 센터장은 “유학생에게 명절은 한국의 고유문화를 경험할 좋은 기회라며 관계 형성과 정서적인 안정이 유지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은 110명. 수업은 연간 4 학기제, 개개인의 한국어 레벨(1급~6급) 등급별로 참여하고 2년 간 체류가 가능하다. 국가별 현황은 베트남(86), 몽골(6), 캄보디아(5), 중국(3), 우즈베키스탄(2), 키르기스스탄(2), 케냐(2), 세네갈(1), 이란(1), 필리핀(1), 카자흐스탄 1명의 학우들이 수업 중이다.

시설팀 교내 보행로 확장 공사



▲ 모리아관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확장하고 있다.

시설팀(팀장 박태용)이 교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보행로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학교 교훈비에서 모리아관으로 이어지는 약 30m 구간의 기존 110cm 폭 보행로를 260cm로 확장하고, 양옆에 안전을 위한 보행 등도 설치한다.

해당 구간에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고 양옆으로는 불규칙한 판석이 함께 놓인 구간이다. 다수가 보행 시 교차를 위해서는 판석면으로 잠시 벗어나야 하는데 면 자체가 고르지 못해 자칫 발목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던 곳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밀알관 앞 원벤 반송 2그루 부근에서 일립관으로 이어지는 초입 구간을 4.5m로 확장하였고 밀알관 지하 출입구 인근 8m 구간도 기존 140cm에서 240cm로 넓혀 원활한 보행 동선을 확보했다.

박태용 팀장은 “작은 캠퍼스 공간이지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시설 개선과 조경 보완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장의 편지 _ 최정권 총장

길이 없네



9월1일 화요일 저녁 7시 20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어제 시작된 가을 학기 BRC 권면을 시작으로 대학원 개강 예배 권면까지 긴 호흡으로 하루를 마쳤고 다음 날 화요일 부흥회 시작 강사 접대와 여러 번의 면담과 회의를 마치고 약간은 지친 상태에서 저녁 식사를 시작했는데 다급한 목소리가 제 뇌리를 치고 들어 옵니다.

“목사님! 언제 도착하세요?”

하이 소프라노 음색인 이성미 집사님의 음성에 하늘이 노랗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1년 전부터 예약된 연예인 집회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분명 스케줄에 9월8일 화요일 밤으로 되었는데... “목사님,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떠나도 동부 이촌동 온누리교회까지 언제 도착할지 비 오는 동부간선도로가 알 건데...

“목사님 시간을 끌고 있을 테니까 오시는 대로 와 주세요. 그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일단 수저를 던지고 벗은 양복을 다시 입고 설교 원고를 뽑아 5522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는 동안 전화는 쉬지 않고 메시지는 계속 옵니다.

“목사님 연예인 예배 준비팀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언제쯤 도착하시는지요?”

“목사님...” 전화가 울릴수록 차가 막힐 것 같은 순간마다 기도 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이 실수해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둔한 몸이 경험했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의지를 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다는 걸...

그 날 얻은 교훈은 본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고받은 카톡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전하는 과정에서 받은 안부 문자 속에 적힌 숫자는 분명하게 9월1일(화)라고 적혔는데 이미 제 뇌리에 기록된 9월8일이 그 숫자를 무시하게 만든 겁니다. 8년동안 긴 시간 다녔는데도 매월 첫째 화요일이라는 원칙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8일이 첫 번째 화요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음에 각인된 내 생각이 주어진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된 날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길이 없네 202607 최정권



정욱환 직원(사무관리팀)

그
때
의
눈
빛



문하은(간호 1)

이
제
의
눈
빛

감독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축구 경기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선수와 공이다. 하지만 경기를 오래 볼수록 감독을 떠올리게 된다. 어릴 때 축구에서는 감독이 중요한 사람인지 몰랐다. 누가 골을 넣고 잘했으며 먼저 우리 팀이 이겼는지가 더 우선이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축구를 보면서 관점이 바뀌었다.

같은 선수들이 뛰어도 감독이 바뀌면 팀이 달라진다. 선수의 장점을 재배치하고 흐름을 읽으며 전술을 수정, 하프타임에 다른 반전을 이뤄낸다. 잘하는 선수보다 팀에 필요한 선수를 선택, 실수한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도 한다.

대표적인 감독으로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롭이 있다. 클롭은 도르트문트와 리버풀을 이끌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펼쳐 팀을 정상권으로 끌어올린 명장이다. 그는 선수 개인의 능력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하는가?”를 강조했고 선수에게 단순히 전술만이 아닌 팀이 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선수들의 움직임 뒤에는 감독의 큰 그림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한 사람만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팀 고유의 색채를 그려낸다. 결국 그라운드에서 뛰고, 판단하며 책임지는 건 선수의 몫. 감독은 선수가 더 나은 선택을 갖도록 최선을 제시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뛰도록 용기 주고 돕는 사람이다.

우리 삶도 그렇다. 각자의 자리에서 직접 선택하고, 넘어 지기도, 그러면서 다시 일어난다. 때로는 지금 뛰고 있는 경기의 의미마저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방향할 때 용기와 함께 손잡아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보다 나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 분을 신뢰하고 싶다.

결국 중요한 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뛰는 것. 힘든 세상이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맡겨진 경기에서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가고 싶다.

풍성한 가을을 만들어 주실 분과 함께...

그때는 더웠고 지금은 그림다

지난 여름방학, 5년 지기 친구와 강릉 여행을 다녀왔다. 친구와 단둘이 떠나는 첫 여행이었던 만큼 시작부터 설렘, 가보고 싶은 곳도 잔뜩 계획해 두었다. 그런데 8월의 강릉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유명한 카페와 빵집에 가고, 바다에 가서 발을 담그며 맛있는 밥도 먹었다. 분명 바라던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시지 않은 더위는 생각보다 강렬했다. 결국 더위에 지쳐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에어컨을 세게 틀고, 불닭볶음면을 끓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제야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시원한 곳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온 이 여행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만 같아 속상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힘들었던 기억보다 그 속에 사소하나 좋았던 순간들이 먼저 떠올랐다. 귀엽고 맛있었던 빵, 날씨가 더웠기에 더욱 시원했던 바다, 다시 생각날 만큼 맛있는 밥. 더위에 지쳐 들어갔던 카페에서 발견한 맛있는 옥수수 라떼, 작고 귀여운 우정 반지까지. 숙소는 예약한 방보다 좋은 방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작은 행운까지 있었다. 여행 중에는 너무 더워서 계획대로 돌아다니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기만 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상하게도 그날의 더위까지 좋은 기억이 되어 있었다.

여행은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피곤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그때를 되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까지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다.

우리의 일상도 여행과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를 지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에 지치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이지 않던 좋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니 당장 힘든 일만 바라보기보다 잠시 뒤돌아보며 내가 놓치고 있던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어쩌면 지금 힘든 하루 속에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할 만한 소중한 기억들이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니까.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담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예루살렘의 어느 집, 문이 잠겨 있었고 문밖에는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각 집에 들어가 성도들을 끌어내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행 9:26).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 부르던 바나바입니다. 그는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가, 사울의 손을 붙잡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성도들을 결박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를 사랑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청합니다. 문을 닫지 말아 주십시오. 만일 그가 거짓이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문밖에서 있던 그 사람은 바울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니” (고 후 1:3). 누구보다 큰 위로를 경험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했습니다. 성경에서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건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곁으로 다가가 함께 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창립 38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발자취에는, 누군가는 자기 것을 내어놓았고, 누군가는 밤마다 무릎을 꿇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바나바들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밥을 짓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핀 이들입니다. 흔들리는 한 영혼을 붙들고 밤새 울어 준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가 이어 건넵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문밖에서 있는 한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교회, 지치고 넘어진 이에게 이유를 묻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교회, 누군가 “그 교회에 가면 내 곁에 앉아 주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교회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 그 곁으로 가 주십시오. 대단한 말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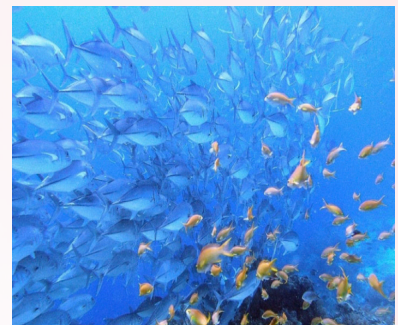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47

착한 시

정일근

우리나라 어린 물고기들의 이름 배우다 무릎을 치고 만다.

가오리 새끼는 간자미, 고등어 새끼는 고도리,
청어 새끼는 굴뚝청어, 농어 새끼는 깔떼기,
조기 새끼는 팡다리, 명태 새끼는 노가리,
송어 새끼는 동어, 방어 새끼는 마래미,
누치 새끼는 모롱이, 송어 새끼는 모쟁이,
잉어 새끼는 발강이, 괴도라치 새끼는 설치,
작은 붕어 새끼는 쌀붕어, 전어 새끼는 전어사리,
열목어 새끼는 팽팡이, 갈치 새끼는 풀치



<https://blog.naver.com/bwgo638/70168019650>

그 작고 어린 새끼들이 시인의 이름보다 더 빛나는 시인의 이름을 달고 있다. 그 어린 시인들이 시냇물이면 시냇물을 바다면 바다를 원고지 삼아 태어나면서부터 꿈지락 꿈지락 시를 쓰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 생명들이 다시다. 참 착한시다.

태어나면서부터 꿈지락 꿈지락 시를 쓰고 있는 작고 어린 생명들, 그들의 원고지는 시냇물 강 바다…… 빛나는 세상을 만드는 작고 어린 시인들을 마주한다.

푸른 원고지 위를 활개치며 누비는 물고기 새끼들의 이름은

‘간자미, 고도리, 굴뚝청어, 깔떼기, 팡다리, 노가리, 동어, 마래미, 모롱이, 모쟁이, 발강이, 설치, 쌀붕어, 전어사리, 팽팡이, 풀치……’ 거침없는 그들의 생명력이 바다를 눈부시게 한다.

꿈지락 꿈지락 작고 어린 생명들이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우리의 푸른 세상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작은 시인들의 노랫소리가 착하게 착하게 울려 퍼져 바다를 더 푸르게 철썩이게 하면 좋겠다.

영유아들이 민속의 날 행사에서 명절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다락어린이집

민속의 날

다락어린이집에서는 22일 전통문화 경험을 위한 '민속의 날'을 진행하였다.

행사를 통해 조부모와 영유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문양을 활용한 전통 무늬 과자를 만들고 맛을 보며 즐겁게 보냈다. 나무 팽이를 만들어 조부모와 놀이로 세대 간 정과 사랑을 나누었다. 이밖에 다도 체험으로 전통 예절과 차 문화도 접하였고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로 조상들의 문화를 즐겼다. [사랑반 소정은 교사]

자조 모임 휴야휴에서 영양죽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월계종합사회복지관

휴야휴 자조 모임

월계복지관 내 '휴야휴' 자조 모임은 매 분기에 한 번씩 모여 일반식 섭취가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죽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 5명은 조리실에 모여 영양 닭죽, 쇠고기죽, 전복죽 등을 어르신들이 영양을 보충하도록 정성껏 조리하여 따뜻한 한 끼를 전하고 있다.

봉사자 5명은 주민들이 자조 모임에서 맺은 관계를 지역사회에 실천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이 이웃의 한 끼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동재 사회복지사]

한가위 행사에서 영유아들이 강강술래를 즐기고 있다.



꿈빛어린이집

한가위 행사

꿈빛어린이집은 22일, 한가위를 맞이하여 영유아들이 전통문화와 명절의 의미를 배우고 나누는 '추석 행사'를 진행하였다.

영유아들이 한복을 입고 투호, 고무신 던지기, 사방치기, 활쏘기 등 전통 놀이의 가치를 친구들과 즐겼다. 어린이집 안에 마련된 보름달을 보며 친구들과 강강술래도 경험하였고 가족과 친구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였다.

이후 익반죽에 콩과 깨를 넣고 직접 송편도 만들며 추석의 넉넉한 나눔과 가족의 소중함을 배운 시간이 됐다. [목련반 최선희 교사]

창립기념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동원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창립기념부흥회

성서대학교교회는 9~11일까지 사흘간 교회 창립기념부흥회를 통해 온 성도가 말씀과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 목사(9,10일)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말씀에 속한 자의 축복된 삶의 모습을 전하였고 마지막 날 마커스위십의 소진양 찬양사는 간증과 뜨거운 찬양으로 은혜의 선물을 부여주었다.

성도들은 강사들이 들려준 말씀의 고백에 깊이 공감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다.

[홍성진 부목사]

가정폭력 피해자 부부가 생애탐방원에서 심리극을 진행하였다.



월계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운영 간담회

월계지역아동센터는 18일 오후 6시 30분, 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들의 학부모 9명과 모여 부모 공감 토크 & 운영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센터와 학부모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공감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견 수렴과 친교의 자리가 되었다.

학부모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아동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였다. 나아가 부모의 책임과 의미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였고 자녀와 인격적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볼 시간이었다며 센터에 감사를 전하였다.

[유아랑 센터장]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 경험을 즐기고 있다.



상계백병원어린이집

부모와 함께 놀이 경험

지난 9월 12일, 상계백병원어린이집에서는 영아들이 부모님과 놀이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가족들은 동물과 교감하는 '찾아오는 동물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인 '오감 놀이'를 즐겁게 참여하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안정감과 자신감, 성취욕을 가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부모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체험형이라 좋았고, 평소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푸른반 교사 박미애]

어울림축제에서 전통 모빌을 만들고 있는 영유아와 가족들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전통 모빌 만들기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5일 '상계3·4동 어울림축제'에서 지역 내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알록달록 전통 모빌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였다.

아이들은 여러 색상의 스티커로 자기가 원하는 색과 모양을 골라 붙이고 꾸며보는 과정에 집중했고, 보호자들도 활동을 도우며 놀이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모빌을 부모, 가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챙겨가기도 하였다. [사업팀장 최은혜]

추석을 맞아 레트로 감성 놀이 한마당을 즐기고 있는 유아들



상계5동어린이집

보나 레트로 놀이

상계5동어린이집은 15일 열린 어린이집 부모 참여 행사로 「추석맞이 레트로 감성 놀이 한마당」을 진행하였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말타기와 팽이, 연탄 집기 놀이도 즐기고 당시의 초등학교 교실을 재현한 포토존에서 촬영도 하였다. 달고나 만들기 등 레트로 댄스로 영유아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흥겨운 분위기기도 만들었다. 영유아들도 접하기 어려운 레트로한 놀이에 적극 참여하였고, 보호자들도 어린 시절 추억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에 모두가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강혜진 교사]

유아들이 소방관 아저씨에게 경례하고 있다.



늘사랑어린이집

소방서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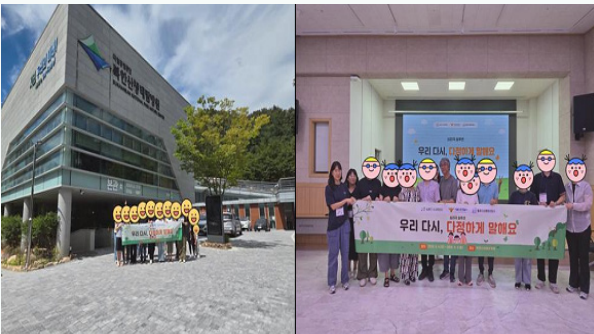
9월 9일 늘사랑어린이집의 만 2,3세 영유아들이 노원소방서에서 현장 학습을 가졌다. 영유아들은 지진과 불 끄기 및 재난 대피 훈련에 참여해, 위기 상황 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과 대피 요령 등도 익혔다.

전시된 소방차를 직접 살피고 소방차의 역할과 화재 예방의 중요성도 인식하였으며 교실로 돌아온 후 관련된 내용의 환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영유아들이 이번 소방서 방문을 통해 소방관의 중요성과 화재나 지진 등의 위기 상황에 신속 대처 방법을 경험해 본 학습이 됐다.

[신나는반 김현애 교사]

학부모들이 센터 운영 간담회에서 의견을 교환 중이다.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심리극 솔루션

월계우리통합상담소는 4~5일까지 북한산 생태탐방원에서 노원경찰서, 노원구 소나무센터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 부부를 대상으로 '우리 다 시, 다정하게 말해요' 부부 심리극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일상을 벗어나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정서 회복을 돕도록 마련되었다. 부부 요가와 심리극을 통해 감정을 돌아보았고 체험활동으로 소통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었다.

[유현숙 상담사]

「성서대학돕기운동」기부현황

www.bible.ac.kr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6년 8월 20일부터 2026년 9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	1천9백만원(운영)	아산사회복지재단	300만원(장학)
강우정.강진	1천4백만원(운영)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250만원(장학)
제봉민병욱장학재단	360만원(장학)	경성교회	205만원(운영)
홍콩중앙교회	340만원(운영)	대전새로남교회	200만원(장학)
정태리	300만원(운영,장학)	성서밀알선교회	105만원(운영,장학)
성음문화재단	300만원(장학)	초대교회	1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성서대학교회
1구좌 김은혜 송바울 이상준 이학준 최민국 황예린	1구좌 강찬희 김진원	1구좌 곽한나 윤석훈	5구좌 성서대학교회 장로회
2구좌 김종명 박상수 윤광길		3구좌 권오섭 이소정	일반
		4구좌 김정숙	2구좌 서경숙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성서대학교회
1만원 강나경 강순성 강애슬 강옥경 강정희 강주옥 고대운 광미화 곽원균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웅 권유철 권정인 권하은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기상형 김가영 김남혜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열 김미진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선근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화 김승훈 김연정 김영호 김예진 김유미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혜 김은화 김일준 김재현 김정원 김진희 김정희 김종환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하은 김한나 김현철 김혜영 김화석 나민석 나선영 나예린 남궁화 남범수 남성휘 노정현 노한나 노 만 류요한 류희정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박경진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모 박 원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정선 박종주 박지영 박창민 박태익 박한을 박향식 박현숙 박형택 박혜인 박지연 배은휘 배재남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서유미 서 용 서진희 서 현 서희영 송명배 송영화 손진규 송기철 송민규 송바울 송수옥 송지민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성민 안현정 양은숙 양지현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찬미 오채엽 오현호 오아름 우종엽 우현아 원원희 유미정 유수정	유주홍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경란 이경일 이근중 이다원 이대환 이두현 이문성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분옥 이상용 이상필 이선정 이세은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안나 이연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윤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 진 이진경 이철승 이하람 이하준 이하철 이현우 이현섭 이현지 이해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연정 장영국 장은희 장현숙 장호성 전명자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정다연 정선도 정소영 정슬기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주영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차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종원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예민 최인호 최재봉 최준은 최주은 최진희 최현정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한경순 한상강 한선희 한지희 한혜우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홍혜경 황예린 강해돈 이 설애스더 황보혜영 /손잡는교회	박성주 박윤경 박재송 박준호 박혜숙 변지윤 성성은 소경숙 송나은 송만호 신기환 신성철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양영주 유미영 유영진 유익숙 윤광길 윤덕진 윤영원 이광삼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상준 이선영 이소희 이슬강 이승찬 이예원 이용원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재은 이정숙 이종임 이창호 이현우 이해정 임수경 임은희 장유정 장익봉 장익식 장재원 전명수 전영희 정나나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목수 정 완 정인숙 조소정 조현석 주민자 주요한 최규봉 최문정 최수지 최예은 최인경 최현우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하진우 허영숙 허춘선 홍원기 /생명의빛교회	/효성교회 11만원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정동주 20만원 강은정 35만원 박예찬 105만원 성서밀알선교회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성철 강찬희 김윤영 김정녀 김진원 김혜미 박기범 심희정 양은성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이수진 장영철 전계화 정현규 조윤경 한승천 한정화 홍상기 홍장훈 황미숙 2만원 강은덕 강현중 권영진 김선옥 김성안 김경숙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형태 문순용 박유순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안차남 여진옥 연성희 오영미 유효진 이동훈 이미영 이선미 이승진 이은영 이지영 이재은 이해란 임정용 장영순 조복임 조율이 최영숙 최유승 허 정 3만원 김선덕 박보병 배정숙 임경배 전희문 최정규 4만원 박은영 전옥순 최경애 5만원 김희선 박선희 박인규 박훈희 손미연 송희경 안종현 윤수호 이재현 이해영 6만원 정주화 36만원 무 명 300만원 정태리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진 김애란 김지환 김준하 김형중 김호현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묘서 박인혁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서한나 신 군 강승원 유성준 유연자 이가영 이은영

2만원	임수아 임재혁 장경순 전귀선 정옥환 조성찬 진달래	2만원	안승수 이해영 한진경 /강영애.신한성/이준구.안춘자	250만원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3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세원 김유진 김장호 문진희 민경은 박예진 반종원 배민정 안 호 오철수 이은혜 이지민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조철남 최남영 한정숙	3만원	권순호 김덕규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꿈꾸는교회
4만원	윤혜진 정지용	4만원	오근수	2만원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주님순교회/행복한교회
5만원	구광면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박상민 신재운 양단아 유미나 이길형 이상일 장성희 장정순 전영호	5만원	김옥자 이경식 이우근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장로회	3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외식산업 /도새기짬
6만원	권순범 신지수 이철희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중앙성서교회 바울순교회	4만원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7만원	김병수 임환석	11만원	황인돈 김순자	5만원	동신자원/우리교회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덕현 김소희 김경숙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태웅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민규 이상아 이소정 이슬기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옥열 최은희 현우석 홍소윤/김정원(신)/김정원(영)	12만원	이혜선	6만원	/의정부좋은나무교회
11만원	최지은	13만원	현희철	10만원	플랜팅스즈
13만원	김웅기 김종완	15만원	퇴계원제일교회	5만원	가학교회/녹수교회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한진호	2만원	유재란	6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 /사랑샘교회/상일교회 /평안교회
20만원	김승욱 김주아 안정선 정휘진	3만원	퇴계원제일교회	10만원	주식회사 이수전기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동산교회/두암산업(주) /상록교회 /섬기는교회/성북중앙교회 /의정부성암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청평교회
23만원	박태수	4만원	평화교회	14만원	우리회
25만원	이강동	5만원	1만원 윤은정	20만원	전하석/(주)소원기건 /인천제2교회
30만원	임지영	10만원	1만원 김희경	30만원	한민제일교회
35만원	최선희	100만원	화도드림교회	200만원	대전새로남교회
40만원	김창원 박 선	1천9백만원	1만원 권순실	205만원	경성교회
1천4백만원	강우정.강 진	성서선교회	5만원 화도드림교회	300만원	성음문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부설기관		세빛교회	1만원	340만원	홍콩중앙교회
3만원	박천순 변송이 안미희 유정현	5만원	1만원 김소아 문경녀 진은숙	360만원	제봉민병목장학재단
5만원	이인경/월계지역아동센터	수원교회	2만원 한옥경	지역사회	
6만원	장나혜	1만원	3만원 진효숙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서애진 송유정 오동준 유주연 이유리 이은정
10만원	김선영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어린이양교회	1만원	2만원	윤종찬 허성보
15만원	권정아 김화영	1만원	열매맺는교회	3만원	문유나 오윤아
20만원	김신덕	2만원	금촌성서교회	5만원	이지연 진양희
40만원	지주나	3만원	동두천성서성김교회	6만원	구세관 박미라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벤앨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14만원	김선화
동광교회	1만원	7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35만원	오동준
밀알교회	1만원	일동성서교회	초대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1만원	1천9백만원		
삼일성서교회	1만원	세빛교회	세빛교회		
1만원	김효정	5만원	5만원		
서문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설 정영광 홍성호 황병숙	수원교회		
성서대학교	1만원	1만원	1만원		
9천원	정태성 김영숙 김현석 오경모 차옥제 최효환 탁경미	2만원	2만원		
1만원	강경태 오경림 유종업 이가은 이경신 이대형 이대환 이지수 이진호	5만원	3만원		
1만8천원	박지숙 이경한 정종승 천재우	장자교회	3만원		
		4만원	3만원		
		5만원	장문석 추영철 /에덴종탑사		
		주향교회	3만1천원		
		1만원	4만원		
		2만원	5만원		
		중앙성서교회	10만원		
		1만원	40만원		
			50만원		

일시납 누계(2026.3.1~2026.9.24) 415,957,792원 | 약정자 누계(2026.3.1~2026.9.24) 429구좌 | 연간 납입 예정액 51,480,000원